

## 갑상선엽절제 후 이차 근치엽절제술을 시행받은 분화성 갑상선암종 환자 23례에 대한 임상적 평가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  
최종욱 · 김웅식 · 조재훈 · 강희준 · 정광운

**배경 및 목적 :** 갑상선 종물은 흡인세포학검사, 초음파유도세포학검사, 전산화 단층촬영검사 및 술중 동결절편검사 등으로 술전 또는 술중 진단의 정확도가 높으나, 최종 조직검사 결과 분화성 암종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 분화성 갑상선암종의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.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이차 근치엽절제술(completion thyroidec-tomy)을 시행한 예들을 후향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갑상선암종의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.

**재료 및 방법 :** 1995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및 안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술전 또는 술중 검사결과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어, 갑상선엽절제술을 시행받은 243례중 조직검사결과 분화성 갑상선암종으로 확

진되어, 이차 근치엽절제술을 시행받은 2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 6례, 여자 17례이었고, 평균연령은 38.4세 였다.

**결 과 :** 술전 흡인세포학검사는 결절성 증식증 12례, 여포상선종 6례, 불충분한 조직이 5례였다. 동결절편검사는 15례에서 시행하였고, 결절성 증식증 5례, 여포상선종 10례 였다.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는 유두상암종 6례, 여포상암종 17례로 확인되어 이차 근치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.

**결 론 :** 갑상선암종은 흡인세포학검사나 동결절편검사로 확진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, 술자는 최종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즉시 이차 근치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근치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